

1. 체험후기

1) 프로그램 강연 후기

i) 전반적인 프로그램 강연 후기

뉴데이 프로그램의 강연은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진행해주셨고, 정치, 외교,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카데미는 총 8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중 하루를 제외한 7일 동안 매일 바뀌는 주제에 따라 약 3개 정도의 강연을 들었다. 난센 아카데미의 설립 취지 및 정신, 노르딕 모델이 가지는 의의와 운영방식, 교육시스템과 학생들의 리더십 증진 방안, 성별 및 젠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연구, 아시아의 평화, 중국의 정치시스템과 발전 방향, 북한과 세계와의 관계 및 바람직한 정치방향,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비록 정치나 외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지만, 교수님들께서 강연 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실재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번 뉴데이 프로그램은 정치학, 외교학, 언론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는 기회가, 그리고 그 외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틀에 박힌 일방향적인 강의분위기에 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생각하는 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유익했다.

ii) 인상 깊었던 강연

노르딕 국가들이 이상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교육에 관한 강연과 토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특히, Unn Irene Aasdalen의 'What is a Nordic Folk High school, and what is special about Nansen Academy'와 'What is good education?'에 대한 토의가 인상 깊었다. 9일간 난센 아카데미에 머물면서 난센 아카데미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알아가면서 난센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난센 아카데미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밟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나 전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과목을 다루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여 무엇을 공부할 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로 진학하고, 심지어 대학의 전공도 고등학교의 성적에 맞추어 결

정되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교육의 모습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도 각 학생이 스스로에게 알맞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주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및 한국의 정치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산둥대학교에서 오신 Daniel Bell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Just Hierarchy and Governance'라는 강의였다. 교수님께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성장배경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다. 교수님께서 서양의 미디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왜곡되게 표현하고, 서양의 잣대만을 사용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지에 대해 비판하셨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왜 특별한 지,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적합한 지에 대해 설명하셨다.

강의를 듣고 나서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서양의 문화에 대한 맹목적 신봉이 아닌가, 민주주의를 모든 나라의 틀에 억지로라도 끼워 넣으려는 서양의 국가들은 정치시스템을 앞세워 자국의 영향력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나라가 클수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관심이 얹혀있을수록 민주주의보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기반으로 한 다른 형태의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주장을 듣고 민주주의 정치형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장 많은 투표수가 나온 정책을 의결시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의견이 공평하게 정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해당 공동체에 속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논의하는 정책이 비교적 단기간을 다루는 것이며, 사람들의 이익관심이 공통된 부분이 많을 때 민주주의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원이 많아지거나, 긴 시간적 스펙트럼을 고려해야 하거나, 수많은 이해관계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하나의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능력에 기반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오랜 기간 그 대표가 정권을 잡는 형식의 정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받는 비판처럼 독재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민주주의에 비해 높지만, 중국과 같이 크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게는 적합한 정치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

물론 그 어떤 정치형태도 완벽하지 않으며, 각각은 자신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징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모든 나라에 민주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보다 현명하고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 강연 외 활동 후기

뉴데이 프로그램에는 강연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특히, 노르웨이 및 중국 출신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가장 활발한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같이 토론하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일대일로 짝을 맞추어 대화시간 가지기,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에게 그 국가의 문화 등 관련 질문사항을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 등이 있다. 뉴데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다름의 이해, 소통과 공유인 만큼, 단순한 강연과 Q&A세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전체 프로그램이 채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앞서 언급된 교류 중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외국학생들로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많을 것이고,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뉴데이 프로그램은 강연이나 토론과 같은 학문적인 활동 외에도 견학이나 가든파티와 같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활동도 함께 구성되어있다. 작고 조용하지만 아름답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마을 릴리함메르에서 방문할 만한 곳에 함께 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사교를 즐길 수 있는 파티도 함께 기획되어 있다. 예를 들어, Maihaugen 야외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릴리함메르의 전통적인 삶과 노르웨이만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 Sigrid Undset이라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작가의 생가를 방문함으로써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노르딕 국가들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단순한 방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있어 자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뉴데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투어는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뉴데이 프로그램은 '동서양의 문화교류와 하나됨'이라는 진행취지와 걸맞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뿐만 아니라 학생참여를 동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

3) 프로그램 시설 및 구성 후기

뉴데이 프로그램 전반이 난센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진행된 만큼, 시설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중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제공된 1인 1실 기숙사는 밝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또한, 도시 자체가 작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온 한국과 중국 학생들은 평화로운 릴리함메르의 분위기가 색다르고 좋다고 밝혔다.

2. 내년도 참가자 참고 사항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면,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며칠 전에 제공되는 스케줄을 보고 강의 제목을 훑은 다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비록 교수님들께서

친절한 배경설명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주시지만, 정치나 외교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 듣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3. 사진 및 자료 첨부

	1) 각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뉴데이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다음 강의에 대해 짧은 소개를 해주신다.
	2) 야외 박물관 견학 당시 찍은 '전통적인 노르웨이 거실'의 모습이다.
	3) 난센 아카데미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릴리함메르 분위기가 느껴진다.



4) 첫날 강연 중 일부의 시작 부분이다.